

유난히 짧은 추석... 엇갈린 '명절 특수' 해외여행 '급감' 택배업계 '활황'

예년에 비해 유난히 짧은 추석연휴(9월 13~15일) 탓에 '명절특수'를 기대했던 업종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명절 때만 돌아오면 호황을 누리던 여행업계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수요 감소에 짧은 연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해외여행객이 급감해 울상을 짓고 있다. 짧은 연휴로 인해 귀성객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 자녀를 찾는 역귀성도 크게 늘 전망이다. 반면 택배업계는 짧은 연휴로 인해 택배물량이 크게 늘고 있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해외여행 천바람 = 추석연휴를 보름가량 앞둔 27일 광주시 동구 A투어에 따르면 추석연휴 하루 전인 12일과 연휴 첫날인 13일 출발하는 전체 여행상품의 예약률은 10% 미만으

로, 예약을 문의하는 전화마저 푹 끊긴 상태라는 것.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예약률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그나마 홍콩과 대만 등 2박3일 코스 상품에서 25~30%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여행사 중 하나인 B관광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추석연휴를 겨냥한 동남아시아 단기여행 상품 가운데 단 한 곳도 30%대 예약률을 넘기지 못하고 있어, 예년 추석에 비해 수입이 80% 이상 감소한 상태다.

동남아와 중국, 일본 등 빈 자리가 없어 여행을 떠나지 못할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던 예년과는 달리 예약률이 10~15%대에 머물러 경영 자체에도 부담을 느낄 정도라는 것이다. 특히 광주지역 일부 여행사들은 좌

석점유를 위해 항공사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마저 날리게 될 처지여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A여행사의 한 직원은 "지난해만 해도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달 전부터 예약금을 받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출발하기 직전에도 좌석이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택배업계 즐거운 비명 = 택배업계의 경우 짧은 연휴로 인해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선물 인사가 어려워지면서 평소보다 배달 건수가 3분 1 이상 늘어났다.

하루 120건 정도의 물량을 처리하는 광주 C택배의 경우 최근 들어 배달 건수가 150~180건까지 늘었으며,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 업체 최모

(41) 대표는 "최근 경유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택배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며 "추석연휴가 가까워지면서 물량이 늘어 조금이나마 허리를 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귀성 포기·역귀성 대폭 늘 듯 = 유통업체 G마켓이 추석을 앞두고 네티즌 2천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계획이 없다(31%)와 고민중(19%)이라고 응답해 귀성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고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고유가로 인한 생활고와 짧은 연휴가 겹친 탓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자녀들과 추석연휴를 보내기 위한 농촌 주민들의 역귀성이나 어는 때보다 많은 것으로 전망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황당한 사기범들

가해자에 불이익 주려 퇴원 거부하다 벌금형

병원 입원기간을 오래 끌어 폭행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병원 측의 퇴원 권유를 거부하고 계속 입원해 있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하늘 부장판사는 27일 병원비를 결제할 능력도 없이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를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승려 김모(5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가해자가 병원비를 대신 결제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김씨는 병원비를 결제할 의사가 없이 입원기간을 오래 끌어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생각이었다"며 "병원 측에서도 통원처리를 권유했는데,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김씨에게는 권유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해자가 당연히 병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에 대해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주체는 해당 진료행위를 받은 피고인"이라며 "가해자가 병원비를 대신해서 내겠다고 자청하지 않는 한 병원 측이 가해자에게 병원비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사촌동생에게 폭행당해 지난해 8월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광주 북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0만여원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재개발추진위·주민총회 시공사 선정 권한 없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주민총회는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27일 이모(45)씨가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총회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도시정비법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 보면 시공사 선정은 재개발 추진위나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재개발 조합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장 심사 혐의 경찰서에서 만취 행패

◇상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40대가 술에 취한 채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다 공무원행방제 혐의가 추가.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46)씨는 27일 새벽 3시30분경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경찰서 정문에서 만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최모(21) 일경과 송정지구대 박모(40) 경사를 맞고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웠다는 것.

◇김씨는 지난 6월경 옆집 주인이 "밤에 시끄럽게 잠 하지 마라"고 항의하자 짜증섞어 벌이다 2층 난간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에 항의하기 위해 술 마시고 경찰서를 찾았던 것.

◇경찰은 "김씨에 대해 공무원행방제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경찰서에 '혹 때러 왔다가 혹 붙이고 간 격이 됐다'고 허를 끌끔.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다중주택·상업용지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설치 및 상담신청

▶ 서울전화 : 02) 3445-0943
▶ 광주전화 : 061) 337-0571

"경찰이 강압 조사" 30대 女 주장 논란

광양경찰서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여·36·광양시 광양읍)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소주 4병을 미성년자인 B(16)군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 25일 오후 4시에 광양경찰서 형사계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으나 담당경찰관이 혐의 내용과는 상관 없는 가족관계와 재산상태, 학벌 등을 물어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2시간이 넘는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담당경찰관에게 이런 것까지 대답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으나 "피의자 심문 메뉴얼을 참조해 조사하는 것으로 학벌 관계는 피의자의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해 심한 굴욕감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또 "결혼은 언제 했느냐, 재산은 현 시가로 얼마냐는 등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심한 스트레스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인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강압적인 조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다문화가정 행복학교

27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송정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행복학교'에서 이주여성들이 손으로 하트모양을 그리며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산지부협의회가 주최한 '다문화가정 행복학교'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김치담그기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前 군의장 낀 역대 도박단 적발

전직 군의회 의장과 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농민 등이 낀 역대 도박단이 경찰에 털미를 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농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도박권을 받고 도박자금을 제공한 M(61)씨 등 2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수백만원의 관돈을 걸고 도박을 즐긴 무안군의회 전 의장 이모(61)씨, 모 농협조합장 임지자 박모(51)씨와 농민 30여명을 걸고 속칭 '도리꼬고쟁' 도박을 즐긴 혐의다.

M씨 등은 지난해 3월 말부터 최근까지 무안에서 21차례에 걸쳐 도박장

을 개장하고 2억1천여만원의 농민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뒤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받거나 관돈의 5%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1천44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 군의회 전 의장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12월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3억4천여만원의 관돈을 걸고 속칭 '도리꼬고쟁' 도박을 즐긴 혐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질병을 사고로 위장... 보험금 1억여원 챙겨

화순경찰서는 27일 자신이 갖고 있던 질병 등을 각종 사고로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김모(34)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38차례에 걸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생긴 것처럼 위장해 2개 보험사로부터 1억1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질병이나 외상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질병 치

료임에도 허위로 각종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11월 헬스장에서 '하이리'로 샌드백을 치다가 넘어져 십자인대가 파열됐으면서도 헬스나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김씨는 거짓 신고로 수개월 동안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것도 모자라 3개월간 병원에 입원, 1천1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겼으며, 이후 입원기간을 연장해 7면서 166일간 연속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보이스피싱 피해 2년간 34억

최근 2년여간 전남지역에서 34억원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 이후 최근까지 전남에서는 325건이 발생, 34억원의 피해가 났다. 연도별로는 2006년에 31건 1억7천만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165건에 17억9천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129건을 통해 14억4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해 100명을 검거해 22명을 구속했으며, 올해에도 73명을

검거해 이 중 28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일 반화되는 동안 수사기관, KT, 우체국 사칭 등 수법도 다양해 졌다"며 "많은 사람이 경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피해방지 홍보방송을 하는 이장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경찰의 예방활동 요령과 검거 수사기법 등을 담은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수사지침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특판 한아름에탁금 **6.50%** (생계형 3,000만원 / 비과세 2,000만원) **1년 만기 (한시판매)**

자영업자를 위한 일일상환(일수)대출

-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 한대계약서, 신분증, 도장
- 목돈을 사용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원금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카드체크와 연계하여 일일상환대출하시면 신속하게 대출 가능합니다.
- 전화신청으로 신청지원 출장 및 상담·신속한 대출 집행

정부의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특례신용보증사대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1조원 정부지원협약」 무보증 신용대출 **6.3%**

두 암 신탁 • 본점: 263-0136 (말바우사거리) • 울곡지점: 264-1232 (구.면여시협정)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개강일 8월 30일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 ▶ 시험: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

수강료 국가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제1기 개강 및 입학안내

- 모집과정: 부동산 최고 경영자과정
- 모집인원: 60명
- 입학전형: 서류전형
- 접수기간: 2008. 8. 1 ~ 9. 3
- 개강일: 2008. 9. 3(수) 오후 7시
- 수업기간: 1년(2008. 9 ~ 2009. 6)
- 수업시간: 수요일 19:00~22:00
- 교육장소: 호남대학교 학생동 캠퍼스
- 원서접수: 홈페이지 신청, 방문 및 우편접수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부동산 경영과정
- 입학안내: TEL. (062)381-4986, (062)370-8336 FAX. (062)370-8161
- 모집대상: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유관사업자, 관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종사자,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근무, 건설업체의 임직원, 시공, 시행, 컨설팅 및 분양사업자, 부동산서비스 종사자, 개발 법인 & 정비사업조합의 임직원, 부동산 재테크 회원자 기타 부동산 사업에 관심있는 개인 및 기업의 간부.
- 교육특전: 호남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종합 시험합격자는 부동산 겸사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호남대학교 행정 대학원 총동문회 가입자격 부여 호남대학교 경제최고 전문가과정 수료자 50만원 할인 부동산 중개사 및 호남대학교 등원 10% 할인

전국 최고의 교수진 출강!!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국 부동산경매사업협회 후원